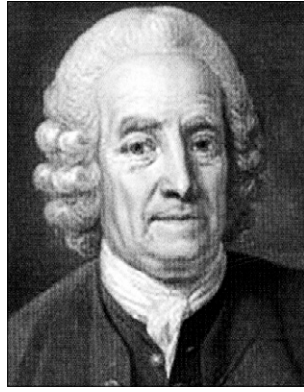


특별기고-불자들이 알아야할 신학자 '스베덴보리'

“모든 종교인은 구원 받는다” 주장

필자가 스베덴보리(Emanuel Swedenborg·사진)라는 스웨덴 출신 신학자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한국세교회의 한 교인에 의해서다. 벌써 5년 전의 일이다. 그분으로부터 의뢰받은 스베덴보리의 책을 번역하기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육신을 지닌 채 여러 차례 천계(天界)와 영계(靈界)를 오가며 그곳에서 보고 듣는 대로의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이렇게 이루어져 전해지고 있는 그의 방대한 신학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가 그리스도의 환영을 접하면서 받은 소명, 즉 성경의 영적인 의미(spiritual sense), 또는 내적인 의미(intelmal sense)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그 소명 가운데 나오는 영적 의미가 그의 신학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은 그의 신학을 추종하는 이들에게는 상식화돼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이쯤에서 필자는 그의 저술과 해외의 저명한 신학자 및 성직자들이 그에 관해 다룬 저술에서 필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해 올리기로 하였다.

먼저 스베덴보리는 “구원이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 자체에 대한 왜곡이다”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그는 주님은 모든 종교에 실제로 임재하시며 결과적으로 모든 종교의 ‘선한 개인들’은 모두 구원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실 기독교인에 대해서보다 비기독교인대 대해 더 확실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이에 게 구원의 방법을 배울지 않는 신은 사랑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전혀 없는 신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가 보고 온 천계(天界)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천국에는 일반적, 종류별, 그리고 세부적 구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두 나라, 종류별로는 세 천

국으로 돼있다는 것이다. 종류별로 완전히 다른 세 천국이 있는 바, 가장 내적(삼층), 중간층(이층), 가장 외적(일층) 천국이 그것으로 세 천국은 그 질서와 상관관계가 가장 위쪽 부위인 머리, 중간 부위인 몸통, 가장 아래 부위인 다리로서 이루어진 사람의 몸과도 같다는 것이다. 정신과 의식에 속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도 이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 천국에는 안쪽과 바깥쪽이 있다고 했는데 이쯤에서 독자들께서는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실 줄 믿는다.

그의 저술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작품, 업적들에 영향을 끼친 바 있다. 그 중 알려진 사람들만 대충 소개해도 칸트, 에머슨, 헨리 제임스, 블레이크, 보들레르, 예츠, 괴테, 켈러리치, 도스토예프스키, 칼 융, 헬렌 켈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사실과 더불어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츠가 <Swedenborg: Buddha of the North>라는 영문판 저술을 남겨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11월 17~20일 미국의 샌디에고에서는 세계의 주요 종교를 대표하는 1만1000명의 종교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종교학술회의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서구불교의 대중화에 있어서의 스베덴보리 저술의 역할’을 다룬 <Swedenborg: A Modern Buddha?> 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우리 불교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아니하리라 생각돼 주마간산적으로나마 스베덴보리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그의 신학사상을 소개해 올렸다. 앞으로 좀 더 상세한 소개를 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석제 번역인

캄보디아 아이들 후원 모임 결성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모임’ 13일 창립총회... 남지심·이평래·김재영 공동대표

어느 나라든 교육이 국가의 미래다. 국내 재가불자들이 캄보디아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모임’(공동대표 남지심, 이평래, 김재영)은 10월 13일 서울 종로 아미타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남지심 공동대표는 “이웃종교에 비해 대승적인 활동에 소극적인 불교계의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는 ‘보살운동’을 생각했다”며 “우선적으로 전통불교국가인 캄보디아 어린이들 학교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고 모임 설립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대표 이평래 교수(총남대)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의 원조를 받으며 살아왔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하는 때”라며 “보시의 정신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앞서서 모범을 보이는 운동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모임’은 3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모임’이 10월 13일 창립총회를 갖고 보살행사를 발원했다.

인의 공동대표를 비롯해 방송인 엄연란, 김경자 구의원(한나라당 강서구 의회), 박상필 국제포교사회장, 서분례 서일농원 대표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온 재가불자들이 결성된 모임으로 지속적으로 회원을 늘려가고 후원시스템을 갖춘 방침이다.

창립과 동시에 시작한 첫 사업은 캄보디아 오도르 민제이 지역에 있는 쏘담 템 불디봉 초등학교 학생 250명의 급식비 및 학비와 8명의 교사 월급을 지원하는 것.

불디봉 학교는 캄보디아 왕사(王師)인 텡봉(Tepvong) 스님이 캄보디아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민하던 중 (주)세화 이등운 회장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하지만 급식비와 교사의 월급을 줄 형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모임’이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 아이들 급식비와 교사들의 월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캄보디아는 인구 1400만 명 중 70%가 30세 이하다. 한마디로

‘젊은 세대 국가’다. 하지만 이 국가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은 물론이거니와 공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조차 봉급이 매우 낮아 수업을 기피하는 등 공공교육 시스템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 앙코르와트와 시엠립 등지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개인교사들이 선교봉사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한 개인교사단체는 2020년까지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어린이 크리치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선교봉사를 벌이고 있기까지 하다.

남지심 대표는 “2000년 전통의 불교국가에 개인교단체가 가서 지원하는 것은 민족, 가족 간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마음속에 살아있는 어린생명을 부처님으로 모신다는 생각으로 캄보디아 아이들의 지원을 희망하는 불자들은 누구나 회원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010)2808-6028, 1946nam@paran.com 이나은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11일 창립 지현 스님 “환자 돌보는 공덕 여래 돌봄과 같아”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국 불교호스피스협회’가 창립을 선포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회장 지현)는 10월 11일 한국불교교사문화 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 협회 고문인 포교원장 혜종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협회 상임이사 능행 스님,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김해자 수녀, 한국기독교호스피스협회장 김성환 목사 등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혜종 스님은 격려사에서 “호스피스 협회를 중단산하 단체로 등록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른 사랑과 내가 돌이 아닌 불이(不二)사상으로 여러분 모두 호스피스 활동

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대표이사이자 호스피스협회장인 지현 스님은 창립법회에서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호스피스 활동은 계속 있어 왔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 진행해온 활동을 조직화해 운영 및 교육 노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창립총회에서는 본부임원추대식을 갖고 협회이사로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법주사 총무 영인 스님,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스님 등 24명을 추대했다. 협회의 회원은 1300여 명으로 아미타호스피스회, 환희불교복지대학, 영남보현자원봉사단 회원들이 등록돼 있다. (02)264-0117 이나은 기자

제2회 서울노인영화제 개최 서울노인복지센터 개막작 ‘문디’ ‘와인할매’ 상영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10월 14~16일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제2회 서울노인영화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미디어 문화관에서 소외돼 온 노인들이 미디어 문화 주제로서의 역할을 되찾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 세대간 이해와 공감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대오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정관 스님(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김동수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가섭 스님은 “이번 영화제는 노인의 주제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역량을 확인하고, 미디어를 통한 노인인 문화의 발전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는 계기”라며 “영화를 통해 세대 간 이해와 공감, 어울림이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이번 영화제 개막작으로는 문디(Moody, 정해실 연출), 와인할매(Wine Grandma, 송주영 연출)가 상영됐다.

문디는 이주여성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이질적인 상황 속에서 ‘문디’라는 호칭으로 소통하는 두 여인을 카메라로 잔잔하게 보여주는 내용. 이어 상영된 와인할매는 먼저 떠난 남편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할머니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영화제에서 전국노인영상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7편의 수상작을 비롯해 어르신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40편의 다류멘터리와 단편영화도 상영했다. 또한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제1회 서울노인영화제의 수상작 7편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02)6911-9585 이나은 기자

산사 예술제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골굴사 전통 무예 대회

불교의 전통 수행법이며 승병들의 무예를 계승한 선무도 세속포교 25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전통무예대회를 개최합니다. 전통무예와 예술공연을 관람하며 체험하는 템플스테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일정안내

- 10월 31일(토)은 제 36회 선무도 승단 심사가 있습니다.
- 11월 1일(일)
 - ◆ 1부 무예대회, 낮 12시 ~ 오후 3시, 선무도 대학 공연장
기천문, 경당 24만무예, 무의단공, 선무도, 영가무도, 태권, 정도술, 풍류선도, 한무도, 회전무술, 국술원, 쿵푸, 차력무술, 특공무술, 합기도, 공수도
 - ◆ 2부 예술공연 오후 3시 ~ 6시, 대적광전 공연장
 - 선무도와 임동창의 피아노
 - 승무(인간문화재 이매주 서울대 교수)
 - 태권(인간문화재 정경화 선생)
 - 풍류, 임동창의 피아노, 판소리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문의 전화: 054)744-1689 / 745-0246 www.sunmudo.com

중국 육조사(육조선원) 지구본원 선원장 모집

중국 광둥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육조선원)에서는 중국선종의 초조 달마대사로부터 육조 혜능대사에 이르는 선불교 사상과 정통조계선종의 법맥을 함께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불자님과 청정수행도량인 육조선원(분원, 명상센터)을 운영하실 스님 및 재가불자를 모집합니다.

- ◆ 자 격 :
 - ★ 선 원 장 : 학력 및 경력,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한국 비구, 비구니, 재가불자로 자비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분으로 수행도량 여건을 갖추신 분
 - ★ 문화원장 :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는 정신수행에 관심있는 스님, 의사, 약사, 교사출신이나 일정한 수행 경력이 있는 분
 - ◆ 구 비 서 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사본 1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1통
- ◆ 연 락 처 :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 (강원도 원주시 소재)
 - TEL : 033)761-7008, 761-2556
 - FAX : 033)761-3200 HP 011-285-6800
- ◆ 서울 문화원 : TEL : 02)766-6800, 720-6363
 - FAX : 02)720-6340 HP 010-4176-5623
- ◆ 경기 문화원 : TEL : 031)574-1108
- ◆ 부산 육조선원 : TEL : 051)403-1375

※ 본 중국육조사 한국본찰 용화사 방식 석 연화 스님은 한국불교의 엄정한 현실과 세계불교화에 뜻을 두고 중국 승산 소림사 제자로 득도 수계 후 수행 중 지난 2008년 10월 11일 중국 광둥성 육조사(대원 방장)와 한.중 불교 선 문화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발을 전수 받았으며, 양국 사찰에 기념비를 세우고 지난 2008년 12월 28일 중국에서 천 년 만에 재현된 육조제를 한국에 유치 봉행위임장으로, 2009년 5월 2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제2회 육조제를 봉행하였고 5월 24일 불교 TV방송 “열린마당” 프로에 육조사 대원방장님과 함께 특별출연 한 • 중선불교문화와 양국불교가 나아 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6월 5일에는 다시 육조사를 방문 육조사 한국 본찰용화사 방장으로 임명 받았고 한국 육조 법맥의 수법 및 전권대표로 중국 육조사 전법중심인 육조선학원원장에 추가 임명 되었으며 지난 9월 14일에는 육조사 대원방장님의 초청으로 중국 호남성 흥강구 선 불교문화 축제에 참가 대홍사 육관음불점안 법회에 증명법사로동참하여 9월 17일에는 육조사 혜능대사 성상이 모셔진 육조전에서 거행된 전법 수계식에서 육조사 한국 제자로 수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